

전통음악과 놀이가 있는 전통문화관 인기

한 달간 국내외 관광객 3만명 발길
토요 문화향유 대표 장소 자리매김
내일 '한강공장' 국악창작 무대



한강공장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융·복합 프로그램인 '토·토·전(토요일, 토요일은 전통문화관에서 놀자)'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매주 토요일 광주전통문화관에서 열리는 '토·토·전'에 지난 한 달간 3만 여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다녀가면서 시민들의 토요 문화향유의 대표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융·복합 프로그램인 토·토·전은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열고 있어 관람객의 호응도가 높다. 사단법인 전통문화놀이연구소가 운영하는 상설 체험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약 2시간가량 진행된다.

오후 3시부터는 서석당에서 전통음악 공연을 만나 볼 수 있다. 13일에는 한강공장이 꾸미는 국악창작무대가 펼쳐진다. 한강공장은 K-팝과 대중음악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창작국악그룹이다. 전반부는 서도민요 배치기 선율을 주체한 산조 즉흥연주를 시작으로 '강강술래', '한 오백년', '도리안 러브' 등 초연곡을 연주한다.

이어 'Beep Alarm, Conveyor Trio', 'Concrete Promenade', 'Factory Metal', 'The subway on my way home' 등 해금, 소아쟁, 거문고, 일렉기타, 베이스의 구성으로 공장의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한 창작곡들을 연주한다. 공연은 홍초은(해금), 송윤민(소아쟁), 박수현(거문고), 김재호(기타), 김예찬(베이스) 등 한강공장의 단원들과 진정민(음악감독)이 참여한다.

20일에는 보리피리 만들기와 소만 속담 알아 보기, 한복 입고 민속놀이 후에는 보리빵 나눔 등 절기체험과 자타공인의 연희 무용무대를 만날 수 있다. 27일에는 무등올림 축제와 연계해 구연동화와 보리피리, 율림동 주민과 함께하는 훗날이와 제기차기, 광주시 무형문화재 대목장 박영근씨의 길과 작품세계를 진행한다. 청소년 춤축제와 광주시 무형문화재 방성춘씨 동초제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 보존회의 진도씻김굿 무대도 관람할 수 있다.

토·토·전은 6월 망종과 하지, 7월 소서와 대서, 8월 입추와 처서, 9월 백로와 춘분 그리고 한

가위, 10월 한로와 상강, 11월입동과 소설까지 절기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매주 토요일 지역민을 찾아준 준비를 하고 있다. 태양이 만든 24절기의 전통문화와 세시풍속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은 물론 계절 특성을 전하는 먹거리와 놀이를 흥미롭게 구성해 선조들의 지혜인 절기를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주말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울 예정이다.

한편, 5월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전통문화관은 '풍류 쓰담 길'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풍류 쓰담 길'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이벤트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풍류 쓰담 길' 홍보 영상에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른 후 일부 코스에서 촬영한 사진을 개인 SNS에 업로드 하면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시사과 탐방버스를 증정한다.

/이나라 기자

ACC재단 전시 콘텐츠 여수·전주 유통

'이퀄리브리엄' 순회 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관심을 받은 전시 콘텐츠가 여수와 전주로 유통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11일 여수 엑스포아트갤러리에서 '이퀄리브리엄' 순회 전시 개막식을 가졌다.

이번 순회전시는 ACC재단과 여수시가 협력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23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응모해 최종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20-2021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선보인 '이퀄리브리엄'은 인간과 환경의 공존의 가치를 다뤄 당시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전시 제목인 '이퀄리브리엄(Equilibrium)'은 생태계 종의 종류와 수량이 항상 균형을 이루는 '평형' 상태를 말한다.

전시는 작품을 통해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들의 행위를 모색한다.

7월 16일까지 열리는 여수 전시에서는 장전 프로젝트(장준영&전지운)의 '회귀된 시간'을 비롯해 ▲물어나(인도네시아) '오션 원더랜드' ▲유지수 '온산: 오래된 미래' ▲김설아 '사자의 은유' ▲커진위엔(대만) '전진' 등 총 5개 팀 9개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전시 기간 동안 장전 프로젝트 '회귀된



여수 '이퀄리브리엄' 전시 /ACC재단 제공

시간'은 관람객의 표정에 따라 실시간으로 드론의 움직임이 변화하는 인공지능 기반 드론 자율 비행 퍼포먼스를 연출한다. 또 양말목을 활용해 물어나 작가의 '오션 원더랜드'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존도 운영된다.

'이퀄리브리엄' 전시는 여수에 이어 오는 8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주문화재단과 협력으로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선숙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ACC에서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전시를 해양의 도시 여수에서 개최함으로써 환경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순회 전시를 계기로 기관 간 협력 사업이 확대되고 지역 간 활발한 문화예술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전통연희단체 광대생각 '만보와 별별머리'

내일 국립남도국악원 초청공연

국립남도국악원은 13일 오후 3시 대극장 전악당에서 '전통연희단체 광대생각' 초청공연을 개최한다.

전통연희단체 광대생각이 펼치는 어린이 연희극 '만보와 별별머리'는 전통 탈춤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머리와 다리가 따로 태어난 만보가 신장수와 함께 자기와 맞는 머리를 찾아 떠나는 좌충우돌 방랑기다. 원숭이 머리와 사슴 머리, 금붕어와 새머리 등을 표현한 다양한 동물 탈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예부터 나쁜 것을 쫓아내고 복을 불러들인다는 의미를 지닌 '사자춤'을 현대화한다. 봉산탈춤, 북청사자놀이 등 우리 전통 탈춤을 새롭게 해석한다.

복으로 만들어진 사슴머리와 뽕이는 뽕, 굴러다니는 원숭이 머리, 작은 연못에서 튀어나오는 대왕물고기, 앉지 못하는 새, 벽락 맞은 나무, 무서운 잠귀 등 다채로운 등장인물의 특징을 살린 탈과 소품, 그리고 머리들을 만나는 다리 만



광대생각 '만보와 별별머리'

보의 변신놀이는 공연의 묘미다.

한편, 전악당(공연장) 로비에는 올해 새롭게 전시공간이 조성됐다.

이 공간은 최첨단 IT 기법을 활용한 국악기 전시를 비롯해 재미있는 실감형 전시 콘텐츠와 국악기 음원 감상 등을 체험할 수 있어 공연과 전시, 체험을 한 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전후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이나라 기자

광주시향·피아니스트 손민수 협연 '거인'

30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리모텔링을 마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광주시향교향악단과 피아니스트 손민수가 협연한다.

광주시향교향악단은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372회 정기연주회 'Titan(거인)'을 개최한다. 이날 광주시향은 새 단장 공사를 마치고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의 첫 관객을 맞는다.

광주시향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과 말러의 교향곡 1번 'Titan'을 연주한다.

광주시향과 협연하는 피아니스트 손민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의 대장정과 함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앨범을 발매했다. 지난해 시즌에는 리스트 초절기교 연습곡 전곡 연주의 전국 투어를 마쳤다. 2015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후학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가을학기부터 미국 보스턴 뉴잉글랜드콘서바토리에서 교편을 잡을 예정이다.

1부에서는 피아니스트 손민수의 협연으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한다. 2부에서는 20대 청년이었던 말러의 낭만적 서정성이 배어있는 교향곡 1번 'Titan'이 연주된다.

광주시향은 6월 1일 예술의전당 '2023년 교향악축제' 개막 공연에도 'Titan'의 공연을 올린다.

/이나라 기자



손민수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기사 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1000@hanmail.net